

區分되었다. 頂上에는 蓮華座위에 化佛一軀가 線刻되었는바 그手法이 注目되었다 全體的으로 純白色인데 이것은 이 곳에 居住하는 사람들이 恒時(먼지를) 닦고 있기 때문이다. 頭像이나 光背의 手法으로 보아 高麗中期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cm)……現高(頭部까지) 約 二〇〇 頭高八一 肩幅耳長四五 胸幅一〇・六一 光背幅 一五七이다.

以上 兩軀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 調査資料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기에 附記하여 둔다.

- 一、二道里石佛坐像……寺址內ニ石佛アリ 全高 三尺八寸兩膝頭間 二尺五寸ノ座像ナリ 光背ヲ有ス、其ノ高サ四尺五寸ナリ。
- 二、觀月里石佛立像……石佛ハ高サ八尺五寸ノ半身像ナリ 圓錐形ノ光背アリ 其ノ高サ一丈三尺ナリ 稍完全ナリ。

李朝白磁胎壺

姜 敬 淑

梨大博物館에 「成化十七年」銘 胎誌石이 달린 白磁胎壺가 收藏되어 있는바 여기에 簡單히 紹介코자 한다.

이 胎誌石은 黑色粘板岩으로서 두께 三・一一三・九cm 크기 二八・二cm x 二〇・六cm이다. 表面에 가로 一〇線 세로 一七線으로 가늘고 얇은 井間區劃을 만들고 그 안에 全三五字의 胎誌銘을 中央에 三行으로 刻字하고 있는데 그全文은 다음과 같다.

皇明成化十七年辛丑三月十一日生

王女阿只氏胎成化十七年七月二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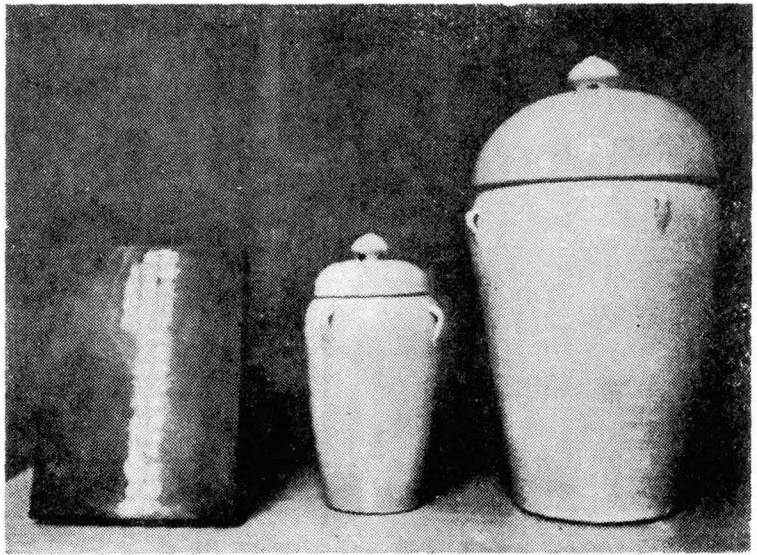
日丁時藏

以上の 銘文에 依하면 成化十七年은 西紀 一四八一年 即 成宗 十二年에 該當되며 同年 三月에 낳은 王女阿只氏의 胎를 七月에 二重白磁胎壺

에 넣어서 묻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미 紹介된 바 있는 貞壽阿只氏胎誌에는 「王女貞壽阿只氏胎」라 했고(註 또는 國立博物館 所藏인 白磁胎壺의 胎誌에는 「王女敦壽阿只氏胎」라고 했는데 이 胎誌에는 王女の 이름이 없이 그냥 「王女阿只氏」라고만 있어 누구의 胎인지 밝혀 있지 아니하다.

外壺는 全高 四七・四cm、身高 三六・四cm、口徑 一三・七cm、甬徑 一七cm、蓋高 一三・八cm、蓋徑 二五・九cm로서 内개의 고리가 달린 肩部에 口緣은 살짝 外反되어 끝이 안으로 말려들어 갔으며 넓고 맑은 乳白色의 釉가 골고루 쇄워지고 光澤도 매우 良好한 편이다. 甬의 形式은 扁平하고 넓적하고 뚜껑은 内개의 구멍이 뚫린 蓮蓬오리形의 손잡이 꼭지와 이 꼭지 주위로 磁土의 흔적이 있어 이의 燒成方法을 말해주고 있다.

內壺는 全高 二八・四cm、身高 二四cm、口徑 九・九cm、甬徑 一〇・二cm、蓋高 六・七cm、蓋徑 一一・五cm로 역시 肩部에 고리가 달렸고 또 初期形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口緣을 가지고 있다. 當時 上質白磁의 典型的 釉色과 光澤은 이들 胎壺가 宮中用 上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卽形式은 外壺와는 달리 約 1cm 가량 들어가 약간의 굽다리를 갖고 있으나 길으로 보아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굽밀을 돌아가면서 耐火土 혹은 모래굽을 깔고 燒成하였던듯 모래의 흔적이 남아있고 물론 卽內 釉藥은 없다. 內壺 卽正 역시 네개의 透孔이 있는 蓮蓬오리 형의 손잡이가 있고 이 주위에는 外壺와는 달리 磁土의 흔적이 없는 대신 卽正안에 磁土받침 使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大小 二重白磁胎壺는 宮中用으로 주로 使用되었던듯 하며 內壺에 胎를 넣어 네고리를 通하여 卽 같은 것으로 봉한다음 다시 外壺에 넣고 같은 方法으로 봉한후 埋藏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出土에 對한 知見이 전혀 없음은 애석한 일이다.

(註) 崔淳厚: 『白磁眞壽阿只氏胎缸』 (本誌 第四卷 第六號 參照)

資 料

安東·英陽·慶州의 塔像 新例

秦 弘 燮

梨大博物館에서 慶北地方 踏查結果 다음과 같은 새로운 資料를 얻었다.

① 開目寺塔塔址

開目寺에서 南方으로 約 100m 떨어진 峰頭에 塔塔址가 있다.

塔은 完全倒壞되어 基壇만을 남기고 있는데 基壇은 單層으로 扁平한 自然石을 利用하였고 基壇위에는 初層塔身의 積心으로 보여지는 石塊가 남아 있고 附近에는 塔破片이 散在하고 있다. 그中 比較的 完全한 塔은 開目寺에 蓮搬保管하고 있다. 이에 依하면 塔은 無文이며 正方形, 長方形의 二種을 使用한 것으로 보여진다. 크기 正方形 一邊 二三·五cm, 厚 四·五cm 基壇高 五五cm 基壇上面 一五〇cm × 一四〇cm

② 安東下里洞 三層石塔 相輪部

安東郡 豊山面 下里洞 三層石塔은 相輪部가 全失되었는데 그 隣近에 居住하는 李仁善氏宅에 覆鉢과 水煙이, 李程烈氏宅에 露盤이 保管되고 있어 이들 相輪部材는 이 塔에 所屬되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露盤 크기 高三四cm 上段一邊 三八cm
覆鉢 크기 高三五·五cm 徑三八·五cm
水煙 크기 高三〇cm 徑一三cm

③ 大地岩谷 磨崖佛像

慶州 南山 大地岩谷(한바탕골)에 未完成 磨崖石佛像이 있다. 南山 里 雙塔이 있는 部落에서 大地岩谷으로 約 六〇〇m 地點 東峰에 北西向한 높이 約 四·二m 넓이 二·六m, 두께 一·八m의 岩石이 서있고 그 表面上部에 높이 九五cm, 넓이 八五cm의 佛像 頭部만이 彫刻되었다. 肩部도 一部 손을 맨듯하나 頭部以下는 未完成이다 優作은 아니나 「慶州南山의佛蹟」에 漏落되었기에 紹介하여둔다.

④ 英陽縣洞三層石塔의 十二支像

英陽郡 英陽邑 縣洞 三層石塔 上基壇面石에 菩薩像, 初層塔身에 四大王像이 彫刻되어 있음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지만 下基壇 面石의 彫刻에 對하여는 言及이 없는데 梨大 遺蹟 調査隊에 依하여 十二支像이 彫刻되어 있음이 確認되었다.

高麗紺紙金泥 「法華塔」 (日本 京都 東寺 所藏)

黃 壽 求

一九六一年秋의 일인가 한다. 李弘植先生과 같이 日本 京都市에서 東寺를 찾은 것은 塔像과 建物보다도 이 곳에 소장되어 있는 高麗 金泥畫의 傳稱 法華塔을 一見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寺務所를 찾아 부탁하였던 바 數日後 다시 連絡하여 달라고 하면서 보여주기를 躊躇하